

연구소 소식

육아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식 및 제 6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4일 외교센터 포에버리더스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남희 소장의 개회사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류지영 국회의원, 이옥 초대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창립 10주년 기념 영상과 함께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건강한 아동, 성장하는 아동’이라는 주제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공중보건과 역학 전공인 Atsuko Araki 교수가 주제강연으로 ‘환경과 아동의 건강 관련 홋카이도 출생 코호트 연구와 일본의 환경과 아동연구’에 대해 발표했으며,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의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본 소아 알레르기 질환 연구’, 연세대학교 박경자 교수의 ‘형제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김낙홍 교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와 교사 특성 간 관계’ 발표가 있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하은희 교수, 연세대학교 오경자 명예특임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신동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10주년 기념식 및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는 교육보육 관련 전문가 및 정부부처 인사, 학생 등 약 다양한 청중이 참석했으며, 우남희 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제안을 하는 연구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제 1차 어린이 안전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차 어린이 안전 포럼'이 12월 18일(금) 외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3년 지속 예정인 협동과제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의 1차년도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로, 본 연구소의 우남희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부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위원이 각각 세부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인하대 아동가족학과 이완정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박성철 팀장, 가천대 도시계획과 허억 교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허창호 사무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류승표 국장이 참여하였다.

2015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개최 -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육아지원의 실제

2015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이 12월 21일(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육아지원의 실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 포럼에서는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과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류길재 前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통해 통일을 주제로 한 본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본 세션에서는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이경화 객원연구위원이 "통일 대비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지원과 과제"를,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로 활동하였던 이미연 선생이 "북한 유아교육 실제"를, 본 연구소 이윤진 연구위원이 "유아 교사 통일 인식과 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조북희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양옥승 교수, 숙명여대 교육학과 이기범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 박영정 센터장, 공주대학교 사범대 부설 유치원 이은희 교사가 참석하여 영유아 시기부터의 통일 교육과 육아지원을 토대로 한 남북교류의 중요성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국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외교센터 12층에서 「한·중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의 주요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중국종합연구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중 교육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북경사범대학교의 이민의 교수, 중국교육학회 산하 유아교육연구소 위원장이며 화동사범대학교 교수인 주가웅 교수, 그리고 본 연구소의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로 이어졌다. 발표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승신 박사, 중앙대학교의 조형숙 교수, 서경대학교의 구자역 교수를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김금미 장학관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들 발표자 및 토론자 외의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질의 응답시간에 통역을 통한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 및 중국어로 발표자들과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다.



「유아발달 평가의 국제 동향과 쟁점」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7일(금) 외교센터에서 「유아발달 평가의 국제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영국 Durham 대학교의 Centre for Evaluation and Monitoring 소장인 Peter Tymms 교수의 동영상 주제발표와, 싱가포르 국립교육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Alfredo Bautista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본 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옥현진 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지민 박사, 서울교육대학교의 김성식 교수, 경희대학교의 장경은 교수,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창환 박사가 참여하였다.

